

10월11일(월)/로마서13:11~14

제목: 아침에 일어나면 늦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예수님의 재림(구원)이 가까웠다(11절).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깨는 타이밍(timing)이다.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운데 깨는 것이다. 환하게 밝은 다음에 눈을 뜨는 것은 게으름뱅이이다. 어떤 사람은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의식하고 어둡지만 미리 깨어 있어야 한다. 아직은 아침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성경은 지금이 잠에서 깰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찍 잠에서 깰 뿐만 아니고 깨고 난 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 아침이 오기 전 아직 어둡지만 일어나서 세수와 화장은 끝내 놓고 ‘낮에 활동할 때 입는 옷’ (12절)을 미리 입고 있어야 된다. ‘단정히’ 행하지 않는 삶은 방탕, 술취함, 음란, 쟁투 시기이다 (13절)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에서 깨야 하고 그리고 ‘단정히’ 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정신 차리는 것은 늦다. 지금 현재가 잠에서 깰 수 있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단정히 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10월12일(화)/로마서14:1~12(1)

제목: 모른척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3절)는 말은 제사 음식 문제에 관한 말씀이다. ‘제사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사람과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도 그냥 고기일 뿐이지 거기에 귀신 이빨 자국이 있다’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었다. 서로 서로를 비난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날을 중히 여기며 서로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5절).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중히 여겼다. 그래서 서로 서로를 비난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권한은 그 주인에게 있다(4절). 이 말은 사람을 정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 없다는 뜻이다(4절).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5절) 즉,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런들은 문제들은 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자기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는 모른척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다.

10월13일(수)/로마서14:1~12(2)

제목: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지도 못한다(7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공부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나?’ 후회하게 된다. 목적을 잃은 것이다. 그것을 저만큼 가서야 깨닫는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생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한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이웃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8절,10절). 하나님 영광과 이웃 존중의 삶이다. 이 목적이 크면 클수록 값진 생을 살게 된다. 이 목적이 없다면 그 만큼 변변치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이 이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9절).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자기 친 혈육으로 생각하는 자이다. 휴머니즘(humanism)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웃을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요, 친 혈육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12절).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다.

10월14일(목)/로마서14:13~23(1)

제목: 나도 기쁘고 그도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17절).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는 ‘거룩함’을, ‘평강’을, 사람간의 화해를, 기쁨은 말 그대로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쁜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나와 그 사이에 ‘화해’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함부로 비판해서 안된다. 그것도 각자의 가치관과 문화관이 다른데 말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14절) 이 말의 뜻은 음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거룩한 음식, 저것은 더러운 음식,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로 이웃을 비판할 수 있는가?(15절) 내가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기 위해서는 이웃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13절). 즉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요소를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15절). 이런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

10월15일(금)/로마서14:13~23 (2)

제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안됩니다.

제사음식을 먹는 문제로 견해차이가 다른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비방 받은 사람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절) 바울 당시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 있었든 것 같다.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안이다(19절). 자기 견해가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이다(22절) 모자란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다. 그렇다고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저버려서도 안됩니다. 성경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22절)고 하였다. 크리스찬은 자기 신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학적 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합리적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신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실족케 된다면, 혹은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는 양보해야 한다. 한걸음 물러나야 한다. 기준이 없어도 안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해서도 안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